

평신도기관들, 총회장 초청 간담회 가져

애로사항 청취, “바뀌야 할 부분 바꾸고 혁신해 나가자!”



총회장 초청 평신도기관장 및 협력기관장 간담회가 지난 16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평신도국장 강신배 장로의 사회로 시작하여 원로·공모장로회 회장 박상길 장로의 기도 후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설교했다. 홍 총회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저녁으로 시작해 아침으로 마친다. 예수님과 고난의 저녁, 부활의 새벽을 지나 아침을 맞았다”며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 말자.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의 아침을 열어주신다”고 설교했다.

이어 인사말을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맑은 자리에서 힘써 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의견들을 나누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중 물건 판매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수양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물건 판매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총회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총회장은 “수련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어느 특정기관이 아닌 모든 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심하게 잘 살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이장호 장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이해경 권사, 장로회전국연합회 총무 장영만 장로, 원로·공모장로회 회장 박상길 장로, 증경부총회장회 회장 김종상 장로가 참석했다.

한편 이날 부총회장 이광섭 장로는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부총회장이 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은 주저 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의 노력들이 모여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도 이날 간담회에 함께 배석하고 “오늘 나는 애로사항과 의견들은 교단이 발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영양제가 될 것”이라며, “총회차원에서의 도움도 모색해 각 기관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말했다.

이날 원로·공모장로회에서는 총회 대의원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목사들이 못 가면 장로들도 대의원이 못되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이를 시정해 주었으면 한다. 목사 장로 중수의 원칙은 현장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총회장은 “현장개정으로 인해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원로들의 대의원권은 앞으로 4년 후에는 모두 사라진다.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도 “청소년 힐링 페스티벌에 부스를 운영하며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여름 행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 말하고, “여전도회 사업

103회기 선거관리위원회 해단식 갖고 공식업무 마무리

총회장 “공정하게 선거 마무리… 노고 격려”



‘깨끗한 선거, 여호와께 성결’이란 주제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수고한 선관위(103회기, 104회기)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5일 안양시 소재 마벨리에 평촌점에서 해단식을 갖고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장 홍사진 목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왕하 14:3-4 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총회 임원선거 모든 과정을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역할에 수고를 다해 주신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위원장 문정민 목사도 인사말을 통해 “모든 위원들의 아낌없는 헌신으로 모든 것이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선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과 차후 선거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이를 구체화해 현장에 적용할 것에 대한 의견들도 나누었다.

△위원장 문정민 목사 △부위원장 김종현 장로 △위원 김규식 김동환 김용진 박요섭 목사, 김영철 김재홍 유경준 진성아 장로.

교육부, 소위원회 갖고 사업계획 논의

성결교육진흥원 활성화 위해 교육부가 나서기로



교육부(부장 노윤식 목사)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중구 명동 소재 밀리오레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선 104회기 목회자 평생교육 일정 등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개최 시기는 기존에 진행하던 대로 1월 중에 진행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103회기의 연장선으로 큰 주제를 교회와 소그룹으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개최되는 PK수련회와 목사인수대상자 교육 등의 연계 교육 등에 대한 의견들도 논의되었다.

성결교육진흥원과 관련한 의제도 다루었다. 현장에 명시된 조직인에도 역할

과 기능이 불명확하여 이를 교육부가 목적과 사역의 방향 등을 재정립하고 재정확보 방안 등을 더 연구해 교육부가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산하기관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도 제시되며 104회기 교육부가 진행해 나갈 사역의 방향과 사업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구체화 시키는 의견들을 제시하며 오는 9월 전체 회의의를 통해 이를 확정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드린 예배는 교육부서기 성승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교육부 부장 노윤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동정



총회장
홍사진 목사

7. 22	호남전도지방회 설립예배
24	제2차 실행위원회
29	목회지하계수련회 장소 계약 체결
8. 4~6	교단 청소년 수련회
7	목회자 하계수련회 준비모임
11~13	예성부흥사회 여름산상부흥성회
15	한성연 청년연합수련회
25~27	목회자 하계수련회
29~30	장로회전국연합회 전국대회

>1면에 이어

△은급재단에서 청원한 현장개정안이 논의되었다. 재단은 정관 7조 3항의 “퇴직 5년 이하를 남겨두고 매달 납입한 5년 전 1년 평균 월 기여금의 3배를 초과하여 매달 납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5년 안에 이자율을 받을 수 없어 운영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 요청했다. 담당 실무자를 통해 정확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다루기로 했다.

△유지재단에 예산 신청의 건이 다루웠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이미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결정되어 추가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유지재단에 지난 의회부서장 회의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각 부서 사업예산안을 신청받아 이를 검토해 1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대한 재단에 부담을 안주는 선에서 조정하여 신청키로 하고 재단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단총무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지난 103회 정기총회 임원선거에 현 총무가 “현장 상총회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선거에 참여하였으므로 당선 무효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차기회의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각각의 주장을 듣기로 하였다.

△이혼으로 인해 목회직을 상실한 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진정서의 이유가 현장에서 규정한 ‘이혼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구제키로 하였다.

△교육부가 제출한 협조의 건이 논의되었다. 유명부실한 성결교육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진흥원장직을 겸직해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더 심도있게 연구하여 결정키로 했다.

사회복지부, 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산불피해 지역 후속 지원… 자원봉사 팀 만들어 8월 중 지원



사회복지부부장 김병현 목사 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8일 성결대학교 사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2명의 소위원회 위원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4회기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

항들이 다뤄졌다.

한성연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던 한성연 사회복지정책포럼을 올해에는 성결대학교에서 11월 중에 개최키로 하고 이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주제와 관련해서도 환경과 재난, 사회복지 정책, 교회와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한 참석자는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목회자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교회 지역의 배움터가 되다-평생교육의 집착점을 찾다.”는 주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영남지방의 화재로 인한 후속 지원사역으로 사회복지부와 농어촌부가 함께 연합하여 울진수안교회와 주변 마을에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를 지원키로 하고 농어촌부 소속 교회 교인과 청년 200여 명의 자원봉사팀을 만들어 8월경 봉사활동을 시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에는 현장답사를 다녀 오기도 했다.

총회본부 본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완료

최종 시공사로 주디종합건설(주) 선정, 오는 25일 착공신고

유지재단이사장 류제곤 목사에서 진행중인 총회본부 본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시공사가 선정되었다.

재단은 지난 4월 7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갖고 공사 입찰조건과 건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6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11일 입찰 참가사를 대상으로 총회본부에서 프리젠테이션을 가졌다. 이날 프리젠테이션에는 6개사가 참가해 저마다의 역량을 과시하며 공사의 안전성과 합리적인 가격, 사업 실적 이력 등을 소개하며 선정을 호소했다.

재단 이사회는 2차례의 회의와 참가자 개별 미팅을 갖고 지난 21일 주디종합건설(주)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측은 오는 7월 25일까지 공사 착공신고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총회본부



본관 증축 및 리모델링·주차장 신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새롭게 신축될 총회 별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면적 173.45㎡(52.46평) 용적률 153%로 지하층 191.55㎡(58평), 지상층 510.16㎡(154평) 총면적 701.71㎡(212평)로 건축된다.

지하 1층에는 사무공간과 선교홀로 사용될 예정이며, 1층은 로비와 전시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2~4층은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구성되어 협소했던 총회본부의 업무공간과 회의공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연 3천여 청년들 모여, 성결복음 외친다

광복절, 3개 교단 청년들 신길교회서 연합집회

3천여 명의 성결교회 청년들이 모여 성결의 영성을 회복하고 성결의 복음을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홍사진 목사·이하한성연)는 오는 8월 15일 신길교회이기용 목사에서 한성연 청년 연합수련회 데웨이(The Way)를 개최한다. 본 교단을 비롯한 기성 나성의 청년들 3천여 명이 모여 성결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울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여호와께 성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말씀과 찬양 등 총 네 번의 세션이 마련돼 열정적인 믿음을 도모한다.

첫번째 세션은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가 나서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두 번째 세션은 시미선교회 이 규 목사가 나서서 인도한다. 세 번째 세션은 김선교 선교사가 진행하며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아이자야 썹스터원(Isaiah 61:1)의 공언과 찬양으로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되며 젊은 청년들의 성결선언문도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준비위원장 이 규 목사는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반대로 청년이 살면 나라가 산다”며 “성결이 연합해 개최하는 청년집회를 통해, 다음세대가 영성을 회복하고 차세대 리더로 거듭나는 계기를 갖길 소망한다”고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참을 선포한다. 사역위위원장 윤성철 목사(개동교회), 교회학교연구소 소장 홍정수 목사, 신촌나교회 박병훈 목사, 경화여자중학교 교육 최세룡 목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마피(MAPI), MYC의 CCM 콘서트도 예정되어있다.

청소년연합수련회 오는 8월 4일 개최

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가 오는 8월 4~6일까지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수련회는 예성의 청소년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예성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시간의 첫 이정표로 계획하고 있다.

총회 학생부가 주최하고 예성청소년사역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수련회는 4명의 강사가 나서서 매 시간 은혜의 말